

관악·현악·가야금병창...국악 인재들 빛고을서 자웅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15~16일
대통령상 놓고 경합...14일 전통문화관 전야제도

대한민국 국악 인재들이 빛고을에 모여 전통 기악의 깊은 울림을 겨룬다. 관악과 현악, 가야금병창 분야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서 국악의 현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무대가 마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와 (사)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을 연다.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은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전통 기악의 기량과 예술성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국악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선은 15일 오전 9시, 본선은 16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명인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대학·일반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 고등부 종합대상인 교육부장관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등을 두고 경연이 펼쳐진다. 전통 기악 분야의 체세대 명인과 신진 연주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만큼 국악계의 관심이 높다.

빛고을기악대제전은 해마다 관악과 현악, 가야금병창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며 국악 전승과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전통음악을 공부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고, 관객에게는 우리 음악의 깊이와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대회에 앞서 전야제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빛고을 기악, 새로운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릴 전야제 공연은 대한민국 국악의 심장을 광주로 모으고, 새로운 울림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무대다.

고혜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무대는 가야금병창 금의소리 연주단의 ‘민요메들리’가 연다.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이수자인 이경진·김유빈·고혜수·이다운·이하람을 비롯해 최고은·김하영·김태은·주아린·김빛나라·김지율·정여원 등이 함께한다. 호남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요로운 인심을 노래한 단가 ‘호남가’와 친숙한 민요를 엮어 젊은 국악의 활력을 더한다.

이어 김덕수 명무가 전통춤 ‘살풀이’를 선사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이수자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14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전야제 무대를 꾸밀 금의소리연주단.

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김덕수 명무는 한을 풀어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살풀이춤의 절제된 몸짓과 깊은 호흡을 무대 위에 펼친다.

판소리 무대에서는 광주시 무형유산 제16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김선이 명창이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놀보 박타는 대목’을 들려준다. 1908년 남원춘향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 명창은 욕심 많은 놀보가 흥보를 따라 박을 타다가 뜻밖의 장면을 맞닥뜨리는 해학적이고 극적인 대목을 통해 남도 판소리의 맛을 전한다.

기악 합주 ‘시나위’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시나위는 다양한 악기들이 장단 안에서 자유롭게 어우러

지며 즉흥성과 조화를 보여주는 전통음악이다. 이번 무대에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악장인 아쟁 황승주, 가야금 정선옥, 서울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대금 김선호, 고수 고정준이 함께해 기악의 자유로운 호흡을 들려준다. 광주시 무형유산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황승옥 명창은 ‘적벽가’ 가운데 ‘이매인대’를 부른다. 제33회 경주신라문화제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황 명창은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뒤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화룡도로 도망가는 장면을 소리로 그려내며 무대의 깊이를 한층 배가시킨다.



황승옥 명창의 무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인 송제영 명창은 ‘춘향가’ 가운데 ‘춘향편지 가지고 한양 가는 대목’을 선보인다. 춘향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이몽룡에게 전하려는 방자의 여정을 소리로 풀어내며 판소리의 서사성과 해학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임응수 명무는 ‘상공춤’을 무대에 올린다. 경기도 무형유산 광명농악 예능보유자인 임 명무는 광명농악과 도당굿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농악, 연희가 어우러진 광명 지역의 대표적 전통춤을 선보인다.

전야제의 마지막은 전라도 대표 남도잡가인 ‘육자배기’가 장식한다. 황승옥·김선아·이경진·김유빈·고혜수·최현희·이다운·이하람 등이 함께하고, 아쟁 황승주·가야금 정선옥·대금 김선호·장구 고정준이 반주를 맡아 애절하면서도 힘 있는 남도 소리의 정서를 전달한다.

황승옥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 이사장은 “가야금 산조의 뿌리가 영암인 만큼, 전남광주로 하나된 지금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며 “이번 대제전은 우리 지역이 국악 경연과 전통예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

제전은 전국 연주자들이 빛고을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명인들의 전야제 무대가 더해지면서 경연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악 축제로 꾸러지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육사 시인의 ‘36편 시’ 꺾적 따라 삶 깨우다

전동진 시인 산문집 ‘나는, 겨울, 강철무지개’ 출간
시 밖 다양한 삶을 작품과 논문 섭렵 후 수상별 발현
‘광야’·‘청포도’ 등 시편 분석...유·무형적 자취 복원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였던 이육사. 일찍이 교과서에서 ‘광야’나 ‘청포도’ 같은 시를 접하며 위대한 시인의 품격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의 널리 알려진 시편들 때문에 많은 유작들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가 생전 남긴 시는 불과 36편에 불과했다. 그는 시만 쓸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다. 조국이 일제 식민치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투사로서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웠던 그는 수필가, 소설가, 영화비평가, 문학인, 여행가, 경제인, 국제정치전문가, 정치인 등 많은 삶을 감내해야 했다. 시인이기 전에 인간 이육사의 삶의 행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산문집이 나왔다. 대학에 적응 두면서 시인이자 오랜 기간 문학 연구자로 활동을 펼쳐온 전동

진(전남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씨의 산문집 ‘나는, 겨울, 강철무지개’가 문학들에서 최근 출간됐다.

이번 산문집을 낸 계기는 저자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광주학생운동의 주역 윤창하의 옛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윤창하의 집에서 이육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읽으면서 저자는 삶과 생활, 사유와 사상, 시가 일치하는 한 인간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이육사에 매료됐다. 여기서 언급된 윤창하는 15세에 일제에 붙잡혀 상상하기 힘든 고문을 당했으며, 출소 후에는 심신이 망가져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저자는 잠시 시인들이 ‘시인 이육사’



만을, 역사가들이 ‘독립투사 이육사’를 지시하려 했다는 것을 깨친다. 저자는 이육사의 시에 대해 “그중 절창이라 할 만한 대역시 편을 빼면 나머지 편은 태작에 가깝다”고 하는 기존의 평가에 단호히

맞선다. 또 “이육사는 체질적으로 허약해 장기간 무장투쟁을 감당할 몸이 아니었다”고 한 평가에 “그들은 과연 이육사의 수필을 읽어보기는 했을까”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1939년 이육사가 1939년 ‘문장’ 10월호에 발표한 ‘형애’를 언급한다. 이육사는 10월호에서 “내라는 사람은 실로 천대만을 만큼 건강한 몸이라, 365일에 한 번도 누워본 기록이 없으니”라고 밝히고 있어 그의 다방면의 활동이 가능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육사의 시 36편을 따라가며

그의 시, 소설, 비평, 평론은 물론 관련 논문 200여 편을 탐색해 갔다. 한 편, 한 편의 시를 한 편, 한 편의 논문으로 완성했다. 36편의 시에 저자의 학문 안팎의 상상력이 오롯하게 담겼다고 보면 된다.

이육사의 시 ‘황혼’을 통해 지구행성인의 탄생과 행성적 연대를 읽어 내고, 시 ‘청포도’를 통해 생활의 윤리에 기반한 이육사의 삶과 문학세계를 짚어 낸다. 이육사가 무장투쟁을 선택했다면 17차례의 옥고를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육사가 무장이 아닌 ‘문장 투쟁’을 선택한 것은 목숨을 두세 배로 건 더 힘든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밝히려는 것은 다름 아닌 생활인, 그러나 누구보다 강직했던 실천가 이육사의 진면목이 아니었을까 싶다.

전동진씨는 화산 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시와 정신’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과 산문집 등 다수를 펴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말 대신 몸짓’...몸과 마음 잇는 인문학

광주문화재단. 15일 글빛마루정원
제1회 마임 캠프 ‘밀고 당기기’

말이 아닌 몸짓으로 마음을 읽고, 움직임 통해 삶을 성찰하는 마임 캠프가 첫선을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글빛마루정원 일대에서 제1회 광주 마임 캠프 ‘밀고 당기기’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체 언어로 내면의식을 표현하고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과 지역 초소형 문화기획사 ‘이것은 서점이지 아니다’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마임아티스트 고은결이 협력 기획으로 참여한다. 공공 자원과 민간의 현장 기획 역할을 결합한 민·관 협력형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단은 그동안 글빛마루정원에서 운영해 온 활자 및 강연 중심의 정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이번 캠프를 통해 합 인문학을 선보임으로써 인문학 향유 방식의 다변화를 꾀한다.

특히 마임은 언어적 장벽이 없는 무성(비언어) 예술이라는 점에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캠프는 글빛마루정원과 모모홀 등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문 마임 공연과 시민 참여 워크숍을 입체적으로 운영한다.

전문 마임 공연은 1·2부로 나뉘어 선보인



마임계의 거장 조성진

다. 먼저 한국 마임계의 거장 조성진은 여는 마임 ‘원앙부인의 꽃밭’과 닫는 마임 ‘수제천에 의한 나무의 꿈’을 펼친다. 이어 무용과 마임을 결합한 양미숙의 ‘어머니’, 계절의 순환을 인간사에 빗댄 고은결의 ‘사계’, 노부부의 사랑을 다룬 장성실의 ‘행복한 질문’이 관객들과 만난다.

일장일단컴퍼니의 이대열은 카프카의 소설을 오모타다 인형극으로 재해석한 ‘돌연한 출발’, 김기민은 낡은 의자에 얹힌 이야기를 다룬 ‘꿈꾸는 의자’를 펼친다. 시민들이 몸을 움직이며 참여할 수 있는 장르별 특화 워크숍도 마련된다. 오후 2시40분부터 4시10분까지 마임 워크숍 ‘몸&맘 표현하기’와 저글링 워크숍 ‘실패를 반박하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670-7447. 정채경 기자 view2018@

국악연주단 가무악 8일 오후 3시 전악당서

‘유관순 열사가’·‘한영숙류 태평무’ 등 선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8일 오후 3시 전악당에서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시리즈 무대로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무용, 노래 등으로 구성된다. 무대는 연주자의 즉흥성이 돋보이는 기악합주 ‘시나위’로 문을 연다. 이어 역사적 인물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열사가’ 중 ‘유관순 열사

가’, 박범훈 선생의 25현 가야금 연주곡에 맞춰 추는 ‘새산조춤’, 독주 ‘김입규류 아쟁산조’가 각각 펼쳐진다.

우리나라 최초 인건문화재단인 고(故)한영숙 선생의 ‘한영숙류 태평무’, ‘경기도 당굿’의 대강거리에서 부르던 무가를 민요 화시킨 ‘경기대강놀이’도 무대를 채운다. 마지막은 ‘삼도농악가락’이 장식한다.

국악원은 오는 11월까지 공연 스텝 쿠폰 이벤트가 진행해 공연 관람 관객들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공연 관람을 위해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동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는 무료 셔틀버스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61-540-4042.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